



	코스피 2184.29 (+2.42)		코스닥 753.04 (+3.73)
	금리 (미국) 0.902 (+0.008)		환율 (원/달러) 1204.80 (-2.30) (8일)



[뉴스]
코로나발 고용소크
월간 실업급여
사상 첫 1조
02

유동성 랠리, 증시-부동산 끌어올린다

1 'V자 증시' 만든 머니파워

기대보다 빠른 경제회복에
글로벌 증시 가파른 상승세
고용호조에 나스닥 '최고치'
업계 코스피지수 상단 재조정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눈부시다. 증권업계는 증시 강세 지속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증권업계가 올해 코스피지수 상단으로 내놓은 2200선도 장 중 돌파했다.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보합에 머물렀지만 증권업계는 코스피 지수 상단을 재조정하고 나섰다.

8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2포인트(0.11%) 상승한 2184.29에 장을 마감했다. 기관이 3698억원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개인과 외국인 각각 3775억원, 114억원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은 장 마감 직전 매도에서 매수세로 전환했다.

◆ "유래없는 회복 속도"

최근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다. 5일(현지시간) 미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급등했다. 글로벌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가 기대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다. 미국 5월 고용지표는 13.3%로 월가 예상치(20% 수준)를 완전히 빗나갔다. 특히 비농가고용자수는 250만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 750만명 감소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고용시장 파행 저점 통과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만한 결과였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곧 글로벌 경제가 회복된다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경기 전망에 대해 V자반등(빠른 회복), U자반등(천천히 회복), 침체기 등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현재는 'V자 반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주식시장은 불과 3개월 만에

V자 회복을 완성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이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속도"라면서 "이런 현상을 'theV'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했다.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재정정책이다. 미국은 1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7조달러를 두 달 반 만에 시장에 풀었고, 한국은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내 75%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연내 코스피 지수 상단을 재조정했다. BNK투자증권은 기존 코스피 상단이었던 2300포인트에서 향후 경기회복 속도와 주당순이익(EPS) 상승 등을 고려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8일 오전 제주도 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 드론 배송 시연 행사에서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GS칼텍스 '미래형 주유소' 발돋움

편의점 도시락 주문하면 주유소에서 드론이 배송

GS칼텍스가 산업부, 제주도, GS리테일과 손잡고 주유소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GS칼텍스는 제주도 무수천주유소에서 드론 배송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운성 GS리테일 사장,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가 주유소를 드론 배송 거점으로 활용함에 따라, 향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이 GS25의 '나만의냉장고' 앱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주유소 인근의 GS25 편의점 상품을 주유소에서 드론에 적재해 목적지에 배달한다.

또한 기존 유통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생수, 도시락, 식재료 등 생활 물품과 안전상비의약품 등 구호 물품을 신속히 배송할 수 있게 돼 물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서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주유소는 물류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고 물건 적재 공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포돼 있어 물류 거점화에 적합하다"며 "드론 배송을 비롯해

향후 주유소를 활용한 다양한 물류 서비스 개발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드론 배송 시연 행사는 산업부가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드론물류 컨소시엄'의 기술 지원과, 국내 최초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특구'로 선정된 제주도의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받아 개최됐다.

GS칼텍스는 향후 물류회사와 협업체 주유소 거점 드론 배송 사업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GS리테일 등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드론 배송 거점을 확대하는 등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GS칼텍스가 주유소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주유소를 미래형 주유소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GS칼텍스는 기존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주유·세차·정비 등 일반적인 서비스뿐 아니라 카셰어링 및 전기차·수소차 충전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비롯해 택배 및 드론 배송 등 물류 서비스도 제공하는 '모빌리티&로지스틱 허브'로 주유소를 재정의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2 절세매물 소진 강남아파트 넘치는 유동성에 상승 전환

강남구, 문의 늘고 호가 올라
9억 이상 규제대상도 상승세

급매물이 소진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보유세 기준일인 지난 1일 이후 집을 급하게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서다.

강남아파트 값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전반적인 조정을 나타냈다. 일부에선 경기침체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매물이 늘어나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집값은 최근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0.04%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0.03%)이 확대됐고, 일반

아파트는 0.03% 올랐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던 강남구는 0.02% 상승 전환됐다. 가격 하락을 주도했던 급매물이 대부분 해소된 데 따른 상승이란 분석이다.

보유세 기준일인 지나자 급매물도 줄어 들었다. 아파트 가격도 급매물이 쏟아지기 이전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현재 강남구 3.3㎡당 평균 매매가는 5464만원이다.

주요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차(전용면적 126㎡)는 28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26억9000만원에 팔렸다. 4월 27억5000만원, 2월 28억5700만원에 실거래된 기록이 있다.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셈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는 8일 19억5000만원, 전용면적 84㎡는 같은 날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각각 18억7000만원, 20억7500만원에 팔렸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전용면적 84㎡)는 27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달 23억원에 실거래된 이 아파트는 호가만 4억원이 올랐다.

대출규제 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증가도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9억원 초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4월 571건에 비해 100건 이상 늘어난 6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건수는 337건이다.

급매가 빠져나간 지금 추가 매수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보유세 기준일을 의식한 급매물은 소진됐어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이달 말까지 정해지면서 이에 따른 추가 급매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시장에서 지금까지만큼 관망세가 이어진다면 가격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한화시스템, 英 위성통신 안테나사업 인수

한화시스템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해외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선도 업체를 인수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인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의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벤처기업 페이저솔루션의 사업 및 자산을 인수했다고 8일 밝혔다.

페이저솔루션은 2005년 영국에서 설립된 위성통신 안테나 연구개발 전문 회사다. 해상·육상·항공기 내에서 고속 통신을 가능케 하는 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 시스템을 선도하며, 반도체 기반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 개발에 집중해왔다.

평면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저

솔루션사의 안테나는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고성능을 자랑한다. 페이저솔루션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안테나 빔 조향 및 안테나 송수신 제어 위한 반도체 칩 설계 기술도 업계 선형기술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인수로 페이저솔루션의 전문인력과 기술자료·지식재산권(IP)·테스트 장비 등 유형자산을 포함한 원천기술까지 확보하게 된다.

한화시스템은 미래 신사업으로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주목하며 지난해부터 투자를 검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페이저 솔루션이 경영난을 겪으며 파산 절차를 밟게 되자, 적극 인수에 나선 것이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